



박정하

앎이란 무엇인가

— 인식론 따라잡기

아트앤스터디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인문학의 힘을 믿습니다.

인문학 · 문화예술 교육 포털
아트앤스터디

얇이란 무엇인가: 인식론 따라잡기

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독일 관념론의 기초를 세운 칸트를 통해서 경험론과 합리론의 진정한 차이를 살펴보고, '참'에 대한 전통적 인식론과 현대적 인식론의 문제의식을 알아본다.

학습 목표

- 칸트가 바라본 인식론의 기본 구조
- '앎'을 바라보는 경험론과 합리론의 진정한 차이
- 칸트가 말한 '선행'의 의미
- 전통적 인식론과 구분되는 현대 인식론의 요소

강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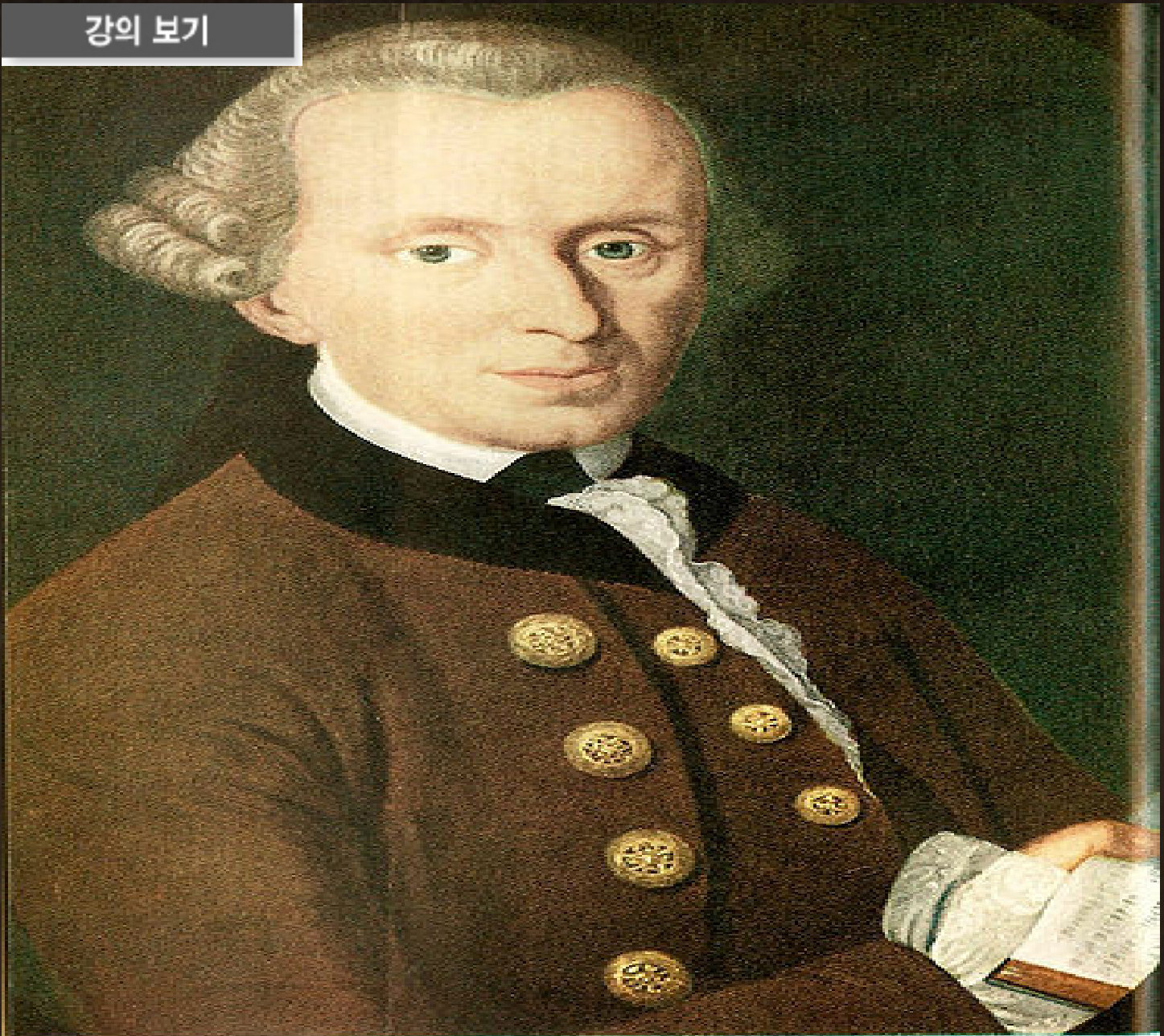
- 박정하

철학자.

칸트 철학 전공. EBS논술연구소 부소장 역임

저서 『박정하 교수의 논술 에센스』(2007), 『학술적 글쓰기』(2007)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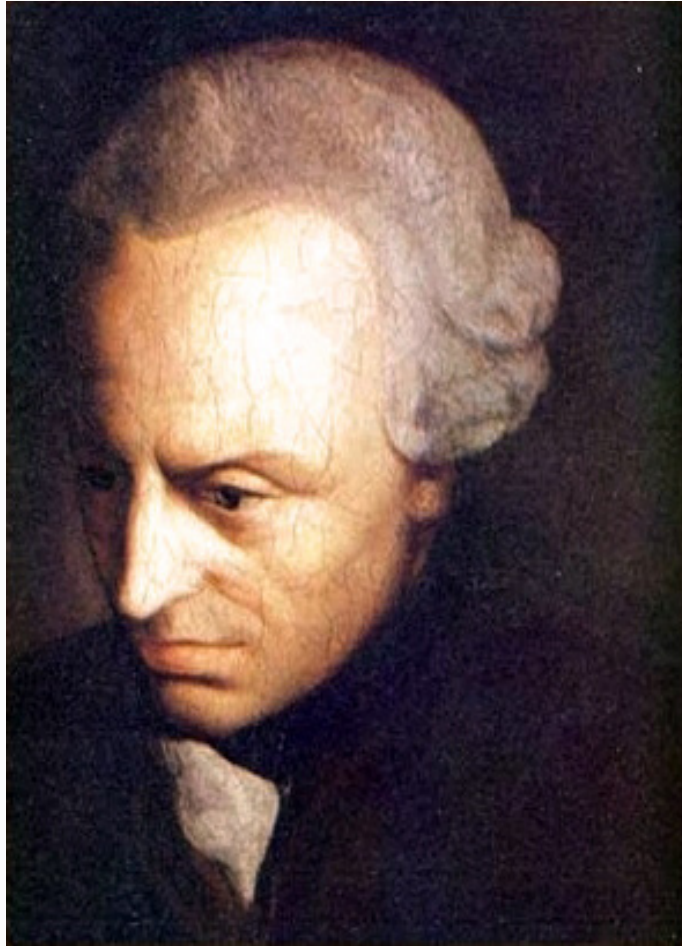
강의 보기



Immanuel Kant

- 제목 : 앎이란 무엇인가 : 인식론 따라잡기
- 강사 : 박정하 (철학자)
- 구성 : 2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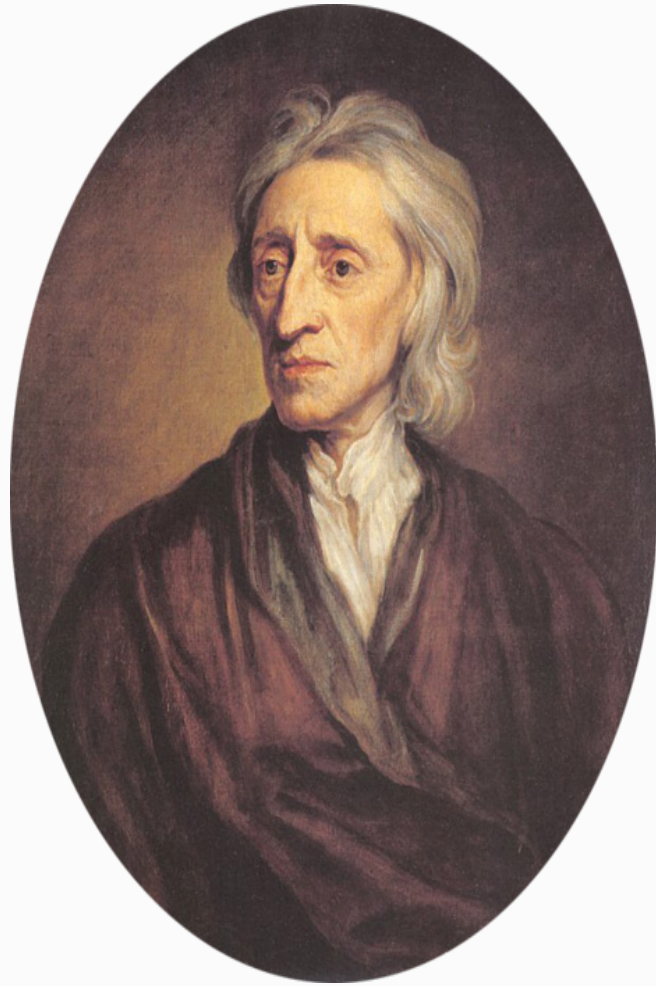
지식 노트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인간을 평생 탐구했던 근대 계몽주의 철학자. 피히테, 셸링, 헤겔로 이어지는 독일 관념론의 기초를 쌓았다. 3대 비판서에서 물 자체(Ding an sich, 초월적 자유)와 현상계(자연의 인과법칙)를 엄격히 구분하였다.

지식 노트



존 로크 (John Locke, 1632~1704)

영국의 명예혁명기에 활동한 철학자, 정치가, 경제학자. 경험론과 계몽사상의 시조로 여겨지며 사회계약설과 자연법사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통치론』, 『인간 지성에 관한 시론』 등의 저서가 있다.

강의 노트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인간을 평생 탐구했던 근대 계몽주의 철학자. 피히테, 셸링, 헤겔로 이어지는 독일 관념론의 기초를 쌓았다. 3대 비판서에서 물 자체(Ding an sich, 초월적 자유)와 현상계(자연의 인과법칙)를 엄격히 구분하였다.

넓은 의미의 이성 = 정신 활동 전체이지만

좁은 의미의 이성 = 감성, 지성에 대비되는 정신 활동

감성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 밖에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수용성, 감각 능력을 뜻한다.

지성은 감성을 통해 들어온 감각 자료를 정리 정돈해서 질서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성은 지성을 통해 정리된 것들을 체계화시키는 능력이다.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자극이 유입되고 있다. 칸트는 감각 자료들이 항상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을 통해 감각되며 시간과

공간의 틀을 벗어나 감각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감성의 단계에서는 인간이 받아들인 정보가 정리되지 않고 잡다한 상태에 머무른다.

지성은 무질서하고 잡다한 감각 자료에 개념을 적용해 대상을 규정한다. 개념을 적용해 대상을 규정하는 지성의 작업을 **‘판단’**이라 한다.

판단을 통해 발생한 명제들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묶는 것이 이성의 작용.

감각을 통해 사물을 받아들임 → 지성과 이성이 정리
→ 인식의 성립

수동적인 감성과 능동적으로 규정하는 이성의 작용이 모두 합쳐져야 인식이 성립한다.

언어와 이성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미를 만들어낸다. 언어가 의미를 만들어내고 의미는 또다시 언어를 만들어내면서 이성 속에서 작용한다. 이성은 의미, 언어 없이는 불가능하다. - 『원숭이는 왜 철학교사가 될 수 없을까』(미셸 옹프레 지음, 이희정 옮김, 2005) 中

칸트에 따르면 개념은 언어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 따라서 이성(지성)은 언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감성(감각 경험)을 통해 받아들인 것을 이성(지성)이 정리하여 인식이 성립한다는 것이 인식론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
감성과 이성 중 어느 것이 더 주가 되는가?

경험론(empiricism)

인식의 기원이 이성보다는 경험과 관찰에 있다고 주장하는 철학적 경향으로 17~18세기 베이컨, 로크, 버클리, 흄 등에 의해 전개되었고 합리론과 대조된다. 계몽사상과 유물론 등에 영향을 주었다.

경험론의 관점 : 감성 경험을 통해서만 인식의 재료가 되는 개념이 형성될 수 있다.

지식은 항상 “주어+술어”의 문장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어와 술어에 해당하는 두 가지의 개념이 연결되어 의미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지식이라 할 수 있다.

경험론자와 합리론자 모두 지식을 구성하는 이성의 역할을 인정한다.

존 로크 (John Locke, 1632~1704)

영국의 명예혁명기에 활동한 철학자, 정치가, 경제학자. 경험론과 계몽사상의 시조로 여겨지며 사회계약설과 자연법사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통치론』, 『인간 지성에 관한 시론』 등의 저서가 있다.

로크가 분류한 세 가지 지식

직관지/ 논증지/ 감각지

로크가 말한 지식의 확실성

직관지 > 논증지 > 감각지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

이 문장은 논리적인 논증 방식이 아니라 직관으로 알게 되는 공리에 해당한다.

“총각은 결혼하지 않았다”

이 문장은 ‘총각’의 의미를 통해 문장이 참임을 논증 없이 알 수 있다.

논증과 경험이 필요치 않은 직관지는 가장 확실한 지식

논증지는 직관지 다음으로 확실하다. 논증 과정이 필요하되, 증명을 통해 참, 거짓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

감각지는 가장 확실성이 떨어진다. 감각을 통한 확인 과정이 필요함은 물론, 확인 결과도 경우에 따라 잘못 될 수 있기 때문.

경험론자와 합리론자 모두 개념을 연결하는 직관의 영역을 중시하지만, 그 개념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견해는 다르다.

- 경험론자: 개념은 경험을 통해 생긴다.
 - 합리론자: 경험과 관계없이 인간 안에 개념이 내재해 있다.
- 경험론과 합리론은 지식의 재료가 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갈린다. 경험론이나 합리론이나 이성이 개념들을 연결하여 지식을 구성한다고 보는 점은 같다.

칸트는 인식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 감각되고 감각된 것을 이성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개념을 통해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하며 성립된다고 보았다.

칸트는 인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험 이전에 이미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칸트의 견해는 인간이 개념을 타고난다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선존해야만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선후 관계를 밝힌 것이다.

“이성이란 도구는 미리 만들어져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얻어내야만 하고 훈련하고 유지돼야 한다.” - 『원숭이는 왜 철학교사가 될 수 없을까』, 303쪽

이성이 논리적으로는 경험 이전에 이미 장착된 것이지만 그 개념을 얻기 위해서는 훈련과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다. 칸트가 말한 ‘선험’은 ‘타고났다’는 뜻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경험에 앞서 있다는 의미이고, 이런 의미에서 이성은 ‘선험적’이다.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앎’을 논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 **참(진리)**

믿음과 추측은 내용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정신 활동이지만 ‘앎’은 오로지 참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잘못된 앎은 모르는 것과 같다. 즉 참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에만 앎이 성립하기 때문에 앎은 ‘규범적’이다.

전통적 인식론이 다루는 가장 중요한 문제

참이란 무엇인가?

‘앎’을 논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 **정당화**

전통적 인식론과 달리 현대에는 ‘참’이 무엇인지보다 참임을 증명하는 ‘정당화’가 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현대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당화’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증명하고 설명하는 것에 해당한다.

학문적 작업의 기본은 바로 ‘논증’이다.

정당화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① verification(검증)

경험적인 정당화 : 경험을 통해 직접 옳음을 보여주는 것

② validation(타당화)

이론적인 정당화 : 이미 확립된 다른 이론에 의해 정당화 하는 것

축적된 데이터를 통한 정당화는 경험적 정당화(검증)에 해당한다.

검증(verification)과 타당화(validation)는 오늘날 과학적인 정당화의 기본적인 형태

③ vindication(자명함)

자기 정당화 : 더 이상 근거를 물어볼 수 없이 정당한 것

어떠한 명제가 참이 되는 조건은 경험적인 검증(verification)이 가능하거나, 자명한 경우(vindication)이거나, 논거가 되는 명제가 참(validation)이어야 한다. 또한, 논거가 되는 모든 명제가 참이 되는 조건도 동일하다.

논거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결국 검증되거나 자명한 명제가 있어야 한다.

자기 정당화(vindication)에 해당하는 것은 논리적 추론의 전제가 되는 궁극적인 토대로, 참과 거짓을 물을 수 없는 세계관, 가치관의 차원이 된다.

정당화를 따지는 것이 오늘날 인식론의 중요한 요소이다.

학습 요약

- 칸트는 넓은 의미의 이성(정신 활동 전체)이지만 좁은 의미의 이성(감성, 지성에 대비되는 정신 활동)이라고 보았다.
- 감성(감각 경험)을 통해 받아들인 감각 자료에 이성(지성)이 개념을 적용하여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인식이 성립한다.
- 인식의 요소 중 개념을 얻는 원리를 두고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데, 이것이 합리론과 경험론이다.
- 전통적 인식론자들은 '참'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애썼지만, 현대 인식론자들은 그 참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문 퀴즈

1. 독일 관념론의 기초를 쌓은 근대 계몽주의 철학자로, 『순수이성비판』 등의 3대 비판서로 유명한 인물은?

- (1) 존 로크 (John Locke)
- (2)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 (3)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 (4) 피히테 (Johann Gottlieb Fichte)

2. 영국의 철학자로, 경험론과 계몽사상의 시조로 여겨지며 사회계약설과 자연법사상으로 잘 알려진 존 로크 (John Locke)는 인간의 지식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다음 중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경험지 (2) 직관지 (3) 논증지 (4) 감각지

인문 퀴즈

3. 다음 중 데카르트(R. Descartes)로부터 시작된 합리론(Rationalism)과 베이컨(Bacon, F)에서 비롯된 경험론(Empiricis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경험론자와 합리론자 모두 개념을 연결하는 직관의 영역을 중시한다.
- (2) 경험론자는 개념은 경험을 통해 생긴다고 보며, 합리론자는 개념이 인간 안에 내재해 있다고 본다.
- (3) 칸트의 견해는 개념이 선존해야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개념을 타고 난다고 보는 것이다.
- (4) 경험론이나 합리론이나 이성이 개념들을 연결하여 지식을 구성한다고 보는 점은 같다.

정답

1. (3) 2.(1) 3.(3)

2. (1) 로크는 지식을 직관지, 논증지, 감각지로 분류했고, 지식의 확실성은 직관지>논증지>감각지 순이라고 보았다.
3. (3) 칸트의 견해는 인간이 개념을 타고난다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선존해야만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선후 관계를 밝힌 것이다. 경험론과 합리론을 통합한 이 이론을 인식론이라 한다.

이미지 출처

강의 보기

- 퍼블릭 도메인

지식 노트

- 퍼블릭 도메인
- <http://en.wikipedia.org/wiki/File:JohnLocke.png>

얌이란 무엇인가 : 인식론 따라잡기

강사: 박정하

발행: (주)아트앤스터디

Tel: 02-323-1081

Fax: 02-323-1082

메일: biz@artnstudy.com

본 강의의 저작권은 (주)아트앤스터디에 있습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ArtnStudy.com